

‘악한영웅’ 배우 박지훈 “전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넷플릭스 시리즈 ‘악한영웅2’ 3년만에
박지훈 “내 어린 시절 연시은과 닮아”
“수호와 재회...리허설에서도 울었다”

“시은이는 저랑 닮은 부분이 있어서 정감이 가고 안쓰러웠어요.”

배우 박지훈(26)은 넷플릭스 ‘악한영웅’ 시리즈에서 주인공 연시은을 연기했다. 2022년 11월에 공개됐던 ‘악한영웅 Class1’에서 연시은은 가족에게도, 처음으로 마음을 열어준 친구들에게도 상처를 입어 마음의 문을 닫았다. 지난 25일 공개된 ‘악한영웅 Class2’ 초반부 연시은은 여전히 친구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혼자 있고 싶어 한다.

“저도 실제로 학창 시절에 환경 때문에 친구가 많은 편은 아니었다. 많은 편이 아닌 게 아니라 없었다. 선뜻 손을 내밀어지는 친구도 없었고, 아예 배우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께 의지한 게 많았다. 그래서 시은의 쓸쓸한 모습이 이해가 가고 왜 시은이가 혼자 있는 게 편한지 너무 잘 알아서 ‘나는 없었으니, 너라도 친구가 있어야’라는 마음이었다.”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에서 박지훈과 만났다. 박지훈이 ‘Class2’를 찍기로 결심한 이유는 연시은이 웃으면서 끝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고 했다. “감독님이 상처받은 시은이를 온장고에 보내고 끝을 낸 걸 미안해하셨던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친구를 사귀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어쩔지 말을 해줬다. 그래서 흔쾌히 시즌2를 하고 싶다고 했다. 시즌1 때 연시은은 모든 걸 잃었다. 감정을 표출 안 하던 친구가 하나뿐인 친구를 잃

어서 유리창 부수면서 끝냈다. 촬영장 구석에 앉아서 울기도 하고, 찢고 나서도 심적으로 힘들었다. 시즌2는 웃으면서 끝나서 보기 좋았다.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 찍은 것 같다.”

연시은은 친구 세 명 박후민(려운), 서준태(최민영), 고현탁(이민재)과 브로맨스 케미스트리를 보여준다. 네 사람은 유독 빨리 친해지는 듯한 느낌을 인상인데, 박지훈은 “어떤 과정을 만들기보다는 그들과 관계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친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준태를 어쩔 수 없이 구해주고 보건설로 데려가려는 모습이 시은이도 알게 모르게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친구한테 마음이 가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모든 친구들이 호흡이 너무 좋았고, 서로 캐릭터에 몰입해서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았다”고 했다.

‘Class2’에서 이들 세 친구가 있었다면 ‘Class1’에서는 안수호(최현욱)와 오범석(홍경)이 있었다. 연시은에게 이 두 친구는 아픈 손가락이다. 두 사람 모두 이번엔 시즌에 우정 출연했다. 특히 전 시즌에서 안수호는 입원해서 깨어나지 못했다. 이후 안수호가 깨어나길 바란다는 시청자 의견이 다수였고, 이번 시즌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수호와 재회하는 장면에서 현장 분위기 도 되게 엄숙했다. 실제로 리허설 때도 눈물

이 났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이고, 우리가 같이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찍은 작품이 기억나서 눈물을 흘린 것 같다. 실제 촬영에서는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송골송골 맺힌 웃음을 지으면서 편하게 놔준다는 느낌으로 표현하려고 했다. 우정 출연해서 에너지를 준 경이랑 현욱이에게 고맙다. 두 사람 모두 시은이는 특별한 존재이지 않을까 싶다.”

일각에서는 대립 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 연시은과 금성제(이준영)의 관계성이 매력이라고 얘기한다. 두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케미스트리를 보여준다. 금성제는 연시은을 공격하다가도 때로는 그를 돕는다.

박지훈은 “준영이 형은 대선배님”이라며 “음악방송 활동에서 만나면 눈도 못 마주친다. 머리를 땅으로 박으면서 인사해야 하는 대선배님인데 형이 흔쾌히 편하게 형처럼 대할 수 있게 해줬다. 형을 알아가다 보니 취미도 맞고 춤을 둘 다 좋아해서 촬영하면서 연습실 가서 음악 하나 틀어 놓고 춤 연습을 하기도 했다. 서로 모니터링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다”고 했다.

이 작품을 얘기할 때 액션을 빼놓을 수 없다. ‘Class2’에서도 다양한 액션 장면이 나왔지만 일진 연합과 온장고등학교 학생들의 대규모 싸움 장면이 화제다. 박지훈은 이 장면만 “2주 반 정도 촬영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사실 다른 곳에 있다가 늦게 합류하는 장면이었는데 찍으면서 너무 재밌으면서도 안전하게 찍었다. 시즌1에 비해 액션에 대한 맷집도 강해진 것도 맞다. 시즌1에서 피할 수 없는 싸움을 하면서 싸움 방식이나 노하우도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지훈은 연기 칭찬을 받자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배우로서 좋은 영향을 가져온 작품



이다. 하지만 작품을 보면서 지뿐만 아니라 많은 선배님들도 자신이 한 작품에 대해 완벽하게 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싶다. 완벽하게 처음부터 모든 장면이 만족스럽지는 못할 거다. 감히 말하자면 저도 아쉬운 장면이 많았다. ‘이 장면에서는 힘을 뺐으면 어땠을까’ ‘널렸으면 어땠을까’라는 고민을 한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게 감사하다.”

‘Class2’는 넷플릭스가 30일 발표한 21~27일 시청 순위에서 조회수 610만회, 시청 시간 3490만 시간을 기록해 비영리 TV쇼 부문 1위에 올랐다. 공개 사흘만이다.

박지훈은 “화제가 되고 많은 분이 좋아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화끈한 액션이나 브로

맨스 케미스트리가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다. ‘나의 학창 시절은 어땠는지, 이런 나에게도 영웅이 있었더라면 누구였을까’라는 추억에 잠기게 되는 작품이었으면 좋겠다.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해주시고 웃길 때는 같이 웃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연시은 입장에서 드라마 제목처럼 자신을 ‘악한 영웅’으로 생각했을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다.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다. 영웅이라고 생각했으면 드라마 내용이 변질됐을 것 같다. 연시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에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뉴스스

김수현 측, 가세연 또 고소 “스토킹 지속”



배우 김수현이 배우 김새론 유족 측 입장을 대변해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톱킹 처벌 위반 혐의로 또 한 번 고소했다.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법률 대리를 맡은 엘케이비엔파트너스는 지난달 30일 “김세이는 자신의 행위가 스톱킹 행위에 해당해 이를 금지한다는 법원 결정이 있었고 지난 24일 이 결정을 고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김수현 배우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위와 같은 행위는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 처벌 대상인 바 김수현

씨와 골드메달리스트는 이에 대해 신속히 추가 고소 조치했다는 걸 알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은 지난 1일 김세의를 스톱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적이 있다. 김수현 측은 김세의의 지속적·반복적인 허위 사실 유포 행위가 스톱킹 범죄라고 주장했다. 수사 기관은 김세의 행위가 김수현에 대한 스톱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같은 달 22일 스톱킹 행위를 중단할 것으로 명하는 잠정 조치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날 이를 받아들여 잠정 조치를 결정했다.

김수현은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2015년부터 6년 여간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새론은 김수현 생일인 2월16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가세연을 통해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과 주고 받은 문자·편지 등을 공개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달 20일 유족과 가세연 등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달 24일엔 김세의를 형법상 협박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로제 ‘아파트’, 빌보드 ‘핫100’ K팝 여가수 최장차트인 자체 경신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겸 솔로가수 로제(박채영)가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지는 ‘아파트(APT.)’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K팝 여성 가수 최장 차트인 기록을 자체 경신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빌보드에 따르면, 로제·마스 ‘아파트’는 5월3일 자 싱글차트 ‘핫100’에서 16위를 차지했다.

지난 주보다 3계단 하락했으나 해당 차트엔 총 27주 연속 진입했다.

앞서 이 곡은 지난 주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가 ‘큐피드’로 세운 K팝 여성 ‘핫100’ 최장 진입 기록인 25주 차트인 기록을 넘어섰다.

‘아파트’는 앞서 ‘핫100’에서 K팝 여성 가수 최고 순위인 3위를 2주 연속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발매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핫100’ 상위권에서 장기집권하고 있는

만큼, 남성 가수 포함 ‘핫100’에서 K팝 최장 차트인 기록을 쓸 지도 모른다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현재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지민이 솔로 2집 ‘뮤즈’ 타이틀곡 ‘후(WHO)’가 ‘핫100’에서 33주 기록으로 K팝 최장 차트인 노래다.

방탄소년단 대표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32주로 2위, 가수 사이의 ‘강남스타일’이 31주로 3위다. 로제 ‘아파트’ 27주가 4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아파트’를 선공개곡으로 내세운 로제의 첫 솔로 앨범 ‘로지’는 이번 주 빌보드 메인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110위를 차지하며 해당 차트에 총 20주 진입했다.

블랙핑크 다른 멤버 겸 솔로가수 제니의 첫 솔로 정규 앨범 ‘루비’ 타이틀곡 ‘라이크 제니’는 이번 주 ‘핫100’에 99위를 차지했다.

9년만에 한국적 아이돌 中 단독공연...한한령 해제 기대감 ↑

오는 31일 중국 푸저우서 콘서트 ‘청춘결핍’

K팝 아이돌이 9년 만에 중국에서 단독 공연한다.

지난달 29일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그룹 ‘이펙스(EPEX)’가 다음달 31일 중국 푸젠성 푸저우에 위치한 마쿠 X CH8 라이브 하우스(MAAQUU X CH8 livehouse)에서 단독 콘서트 ‘청춘결핍 인 푸저우(青春 乏 in 福州)’를 펼친다.

2021년 데뷔한 이펙스는 멤버 전원이 한국 국적인 K-팝 아이돌 그룹으로는 2016년 한한령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단독 공연 개최를 확정했다.

앞서 타 국적 아이돌을 비롯해 미국 국적의 싱어송라이터 겸정차 등 중국에서 공연을 열어왔지만 한국 국적의 가수들의 공연은 제한돼왔다. 그러다 지난 12일 한국 힙합 그룹 ‘호미들’이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공연을 열고, 같은 날 하이난성 하이커우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와 하이난성 자매결연 기념행사에서 트로트가수 윤수현이 초청돼 무대에 오르는 등 최근 한국 국적 대중가수들의 중국 공연 기회들이 마련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펙스는 이번에 중국 당국으로부터 ‘상업공연(commercial performance)’ 허가를 받으면서 한국 가수들의 중국 내 공연에 한층 완화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C9엔터는 “이펙스는 데뷔 후 줄곧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 팬들과 소통을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면서 “앞서 중국 매거진과 화보 촬영 및 인터뷰를 협업했으며, 올해 1월에는 중국 상해와 청도 현지에서 팬사인회를 진행해 큰 관심을 얻었다. 이어 중국에서 단독 공연으로 또 하나의 결실을 맺게 됐다”고 전했다.

이펙스는 현재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도 단독 공연 개최를 논의 중이다.

이번 공연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한·중 간 교류에 대해 개방적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귀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K팝 아이돌 공연이 중국에서 개최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언급된 공연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알지 못한다”며 “한국과 유익한 문화 교류·협력을 전개하는 데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중국과 함께 노력해 양측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발전시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구 14억2000만명의 중국은 일찌감치 한류의 차세대 부흥지로 주목 받아왔다.

중국 내에서 가장 먼저 인기를 끈 콘텐츠는 드라마다. 1997년 CCTV 채널1에서 방영된 최민수·하희라 주연의 ‘사랑이 뭐길래’다. 이후 ‘별은 내 가슴에’ 등이 인기를 누리며 안재옥 등이 한류스타로 떠올랐다.

이후 H.O.T, NRG, 베이비복스 등 1세대 K팝 아이돌그룹과 댄스 듀오 ‘클론’의 노래가 연이어 발매되며 젊은층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하지만 2016년 7월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보복 조치로 내려진 한한령 이후 기세가 꺾인 상황이다.

‘내남결’ 일본판 다음달 첫선...안길호 연출

박민영 주연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일본판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CJ ENM에 따르면,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일본판은 6월27일 아마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프라임비디오에서 공개한다. 넷플릭스 ‘더 글로리’(2022~2023) 안길호 PD가 연출하고, ‘리터의 눈물’(2005) 오오시마 사토미가 집필한다. 코시바 후우카와 사토 타케루가 주연을 맡으며, 시라이시 세이, 요코야마 유도도 힘을 실는다.

이 드라마는 남편 ‘박민환’(이이경)과 절친 ‘정수민’(송하윤) 불륜을 목격하고 살해당한 ‘강지원’(박민영)이 10년 전으로 회귀, 인생 2회 차에 복수하는 이야기다. 동명 웹소설이 원작이다. 지난해 tvN에서 방송, 16회 시청률 12%(닐스코리아 전국 유료가구 기준)로 막을 내렸다.

일본판은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하지 않고, 웹소설 원작 줄거리를 토대로 만들었다. CJ



ENM 재팬과 스튜디오드래곤이 기획, 일본 자유로픽츠와 쇼치쿠가 제작했다.